



30년 공직생활 이후 고향서 농사 '이모작 인생'

지역사회에서 추앙받는 원로(元老)를 찾아보기 힘든 요즘, 장상에 주민들이 존경으로 떠받드는 '큰 어른'이 있다. 수산청장과 전남지사, 국회의원을 역임한 뒤 고향으로 돌아와 15년동안 농부로서 '이모작 인생'을 일궈온 노농(老農) 김재식(83)옹이다.

김 전 지사가 가족들마저 서울에 남겨두고 혈혈단신 자신이 태어난 장성을 영천리 오동촌으로 낙향한 시점은 지난 1992년 4월, UR(우후과이라운드)협상으로 국내 쌀산업을 벼랑끝에 내몰리던 때였다.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을 그냥 써히기가 아까웠지. 불문타어의 자세로 농민들에게 그동안 체득한 지식과 정보를 아낌없이 나눠주고 싶었어" 지역민들 성원 덕분에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쳤으니 여생은 농사를 하며 벼를 갈겠다는 각오였다.

귀향 직후 김옹은 위기에 처한 쌀산업을 살려내기 위해 교육을 통한 '농맹(農盲)퇴치'에 힘썼다. 손수 농사를 지으면서 '노농농사공부방'을 열어 농민들에게 품질 좋은 쌀 생산을 역설했다. 장성군을 비롯 전남지역 7천여명의 농민들에게 선진 쌀 농사기법을 전수했다. 쌀 전업농 50여명의 참여하는 '쌀농사공부방'도 이끌었다.

'노농 농사공부방' 등 열어 農盲퇴치·농법전수 앞장

다른 한편으로는 벼 품종개발과 신품종 쌀 개발에 힘썼다. 쌀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일본에서 국가 및 지방정부가 장려품종으로 정한 품질 좋은 쌀의 씨나락을 구해오기 시작한 것도 그 한 방편이었다. 일본 종자 가운데 우리나라 기후와 풍토에 적합한 것들을 골라 번식시킨 다음 농협과 농민들에게 나눠줬다.

벼씨를 구해오는 일은 쉽지 않았다. "처음엔 일본 학교에 다닐 때 사귀었던 지인들에게 부탁해 사오거나 직접 가서 몰래 낱알을 몇 개 훔쳐오는 식이었지" 현대판 문익점이었다. 나중에 그의 열정에 감동한 후쿠오카 지인들이 후원까지 만들어 그를 도왔으며 이런 지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억척스런 노력 끝에 탄생한 것이 전국 최우수 브랜드쌀인 '한눈에 반한 쌀'과 '자운영쌀' 등이다. 그가 채종한 10여종이 넘는 쌀종자는 밥맛이 좋고 병충해에 강하며 수확량이 보통 쌀보다 40~100%가량 많다.

사실 김옹이 해온 일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종자산업법 등에 의해 판매와 유통이 엄격히 규제돼 있기 때문이다. 김옹도 지난 2002년 들어 '회망' 종자 때문에 벌금을 물기까지 했다. 하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대신 해주는 것"이라고 자부한다. 환경친화적인 쌀겨·우렁이농법도 앞장서 보급했다.

그는 특히 나한 이후 10일만에 한 번씩 빼놓지 않고 '농민의 행복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탈블로이드판 농사소식지를 발간해왔다. 농민의식개혁을 위한 칼럼과 해외농업정보, 농사기법, 농민건강법 등이 여기에 담겼다.



약력

- ▲1923년 6월 28일 장성군 장성을 영천리 출생
- ▲일본 척식대학, 육군대학 졸업
- ▲육군대학 행정부장, 건설부 대백성건설국장
- ▲수협중앙회장, 수산청장, 전남도지사
- ▲동립산업 대표, 제10대 국회의원
- ▲무공회관·충무훈장, 황조근정훈장

재야에서 쌀농업을 살릴 '대체의학'을 모색해온 김옹의 이러한 노력에 전남 농협 관계자들은 지난해 5월 그를 '자랑스런 선도농업인'으로 선정하고 후원회를 결성했다.

사실 식량문제는 전남지사 시절부터 고민해온 그의 평생 과제였다. "1969년 10월 지사로 부임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전남의 곡식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만큼 식량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라'는 특명을 받았지. 도정 최고 목표표도 '식량증산의 극대화'였어" 전남은 당시 전국 식량의 26%인 1천여만섬을 생산했다.

하지만 쌀은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았다. 대신 보리에 주목했다. '보리100만섬 더 내기운동'을 추진했다. 식용 호박과 사료용 호박씨를 일본에서 가져와 공한지에 심도록

(6) 김재식 前 전남도지사



김재식 전 전남도지사가 지난 1972년 10월 새마을축전대회에서 전남진영관을 찾은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남도가 추진한 '실용 가족사료 개발' 등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하고 밤나무로 소득을 올려보자는 '곡수촌(穀樹村) 조성'도 함께 시도했다.

1971년 국민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계기가 됐던 다수확 품종 '통일벼'가 개발됐을 당시 애초소드 하나. 전국 도지사 회의에서 다른 지역 지사들이 알아 쉽게 떨어지고 기온이 높아지면 고사한다는 풍문 때문에 농민들이 심기를 주저한다고 하자 박 대통령은 김 지사에게 의견을 구했다. 이에 김 지사는 다른 지역 지사들을 배알이 주렁주렁 열린 함평 학다리령 야로 데려가 성공에 대한 확신을 심어줬다.

이런 인연으로 김 전 지사는 박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얻었고 수차례 인사에도 교체되지 않아 관선 최장수(4년)

"FTA 따른 쌀 산업 위기 대비

쌀 생산원가 낮추는데 주력해야"

도백의 기록을 갖고 있다. 군인(육군 대령 예편) 출신답게 '지사는 야전군 사령관이다'는 신조 아래 시도때도 없이 헬기를 타고 공중시찰을 하거나 지프를 비포장 먼지길을 달리는 '현장 행진'도 장수에 한 몫했다.

한·미FTA 추진으로 또 다시 위기를 맞고 있는 쌀산업과 관련 김옹은 "고품질과 다수확은 수려의 양 바퀴와 같은 것이지, 애국심에 호소해도 한계가 있는 만큼 쌀의 생산원가를 낮추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의 소원은 '농사 짓다가 눈에서 죽는 것'이다. 지난 1994년에는 시진기증 서약도 했다. 장성군민과 농민들을 위해 써달라는 당부와 함께, 뒷산에는 이미 뒷자리를 마련해놓고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 놓았다. '농민의 행복을 찾아서 말년을 해매다가 아쉬움만 남기고 이 자리에 누워서도 농민의 행복과 풍년을 기원하노라'.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사진=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 전라도 역사이야기

-흑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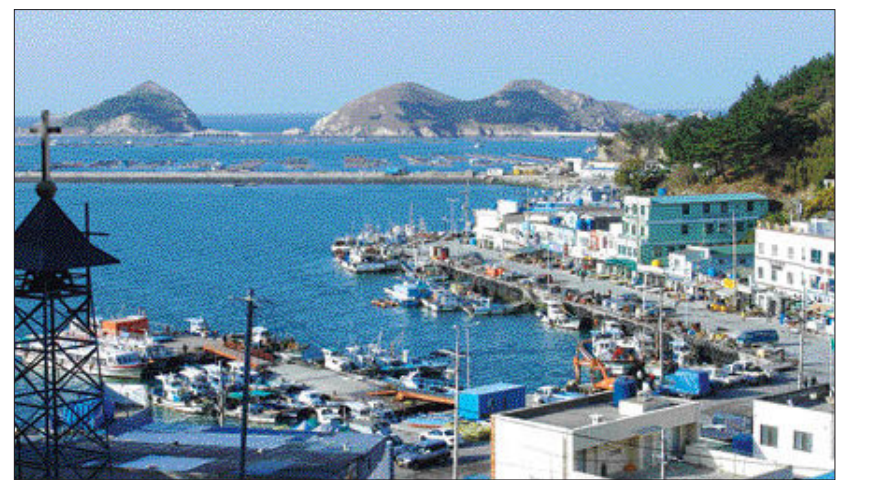
장보고 시절 무역 요충지 역할 現 영산강 이름 영산도서 유래

목포항에서 흑산도행 배를 탔다. 92.2km거리는 1시간 40분 걸렸다. 중간 지점인 도초·비금도까지는 편하나, 나머지 구간은 외해로 바람이 쏘이면 멀미날 구간이다. 예리 선착장에 도착한 뒤 안내판을 살피니 팜포양은 새를 닮았다. 연혁빛들에는 828년 입도, 1413년 나무목 소속, 1678년(숙종4년) 흑산진 설치, 1896년 지도·1914년 무안·1969년 신안군 소속이라고 새겨져 있다.

흑산도는 깃대봉(378m)과 둔암산(356m)이 중앙에 우뚝하고, 북단 상라산과 남단 옥녀봉도 200m가 넘는다. 지프택시 박복광 기사가 섬을 안내한다. 면적 19.2km, 해안선 41.8km, 일주도로 26km, 12개 마을, 1천여 가구, 2천300명이 살고 있다고 한다.

영산강 이름이 흑산도와 연관이 있어 찾았다. 옛 중심지였던 읍동 쪽에 무인도인 내영산도와 농협마크가 보인 외영산도가 흑산항의 방파제 구실을 하고 있다. 남동쪽에는 유인도인 영산도까지 있다. 고려사지리지에는 "흑산도 사람들이 육지로 나와 남포강변에 살았는데, 영산현(嶺山縣)이라 했고, 1363년(공민왕 12년) 놓여서 군(郡)을 삼았다"고 기록돼 있다. 왜구침략으로 섬을 떠나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 전남순천면허시험장이 있는 나주시 영강동 내영산 마을에 정착한 듯하다.

흑산도는 바다에서 보면 소나무와 동백나무 숲이 울창한데다 검게 보였기 때문에 이름이 유래했다는 설이 우세하다. 1872년 그려진 흑산도지도에는 대흑산도는 군



일제강점기 때 개발된 흑산도 예리항. 앞에 보이는 섬은 내·외영산도.

정색, 소흑산(가거도)도는 초록색으로 보인다. 손암 정약전(1758~1816)의 자선어보 서문에는 "흑산(黑山)이라는 이름은 어둡고 처량하여 매우 두려운 느낌을 주었으므로 집안사람들은 편지를 쓸 때 항상 黑山을 岫山(자산)이라 쓰곤 했다. 岫는 黑과 같은 뜻이다"라는 대목이 나온다.

흑산은 '검푸른 바다 위 큰 섬'이라는 뜻도 있다. 장보고 시절 무역의 요충지로 활용됐기 때문이다. 연인은 847년 남나라에서 일본으로 돌아가다 흑산도에 이르러 글을 남겼다. 동쪽을 바라보니 산과 섬들이 겹겹이 있어 뱃사공에게 물으니 바로 신라 응주의 서쪽 경계에 본래 백제 땅이라 한다. 고이도 서북쪽 100리쯤에 흑산이 있다. 몸체는 길게 동서로 늘어섰고, 백제 제3왕자가 피난한 곳이며, 지금 3~400가구가 산중에 살고 있다.

송나라 서경은 1123년 고려도경에 적는다. 흑산은 처음 바라보면 극히 높고 험준하며, 바짝 다가서면 산세가 중박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 앞의 작은 봉우리 하나는 가운데 굴같이 비어 있고, 양쪽 사이가 만입했는데 배를 감출만하다. 사신의 배가 묵는 곳이므로 관사가 아직 남아 있다.

흑산도는 수산업이 성한 곳이다. 흑산수협 박순순씨는 "연간 어획고가 230억원 정도이며, 홍어와 전복은 각 30억원 남짓이고, 우럭(조피불락), 미역, 멸치도 많이 나온다"고 한다. 추석대목이라 8kg 홍어는 5~60만원으로 작년 겨울 풍어 때의 두 배다. /김경수 (사향토문화진흥원장)

아파트 LCD TV 광고 사업 !! 대리점 모집 TELSON MEDIA (주) 텔슨미디어

LCD 광고란? 전 세계적으로 아파트 주거비율이 가장 높은 한국 주거시장에 적합한 최초의 사업으로 독립적 경쟁력있는 사업

깨끗하고 선명한 화질 주위시선을 집중시키는 세련되고 역동적인 디지털 솔루션 이런 LCD 광고 모니터 시대입니다.

전단지 무지개 광고는 가라! 이제는 "LCD 광고"입니다. 영업 사원 모집 경력·신입 0명

- LCD 광고 모니터 사업
- 본사 APT.교회.편경서 LCD 설치수주
- 소지본 무점포 창업
- 본사 광고제작.광고수주 대행
- 겸업 가능
- 미투 30분관리 (대리점 소유 LCD 칩관리)
- 3000만원 창업비용으로 월 350만원 이상수익 (주부창업가능)

저렴한 창업비용으로 최대수익가능, 상담하세요!

(주)텔슨 미디어 ☎(062) 374-3006

서울본원 1차 최종합격생 123명

김재규 경찰학원

합격의 전당
광주 김재규경찰학원이
노랑진의 합격 신화를 이어갑니다

1일·15일 개강 (수시접수)

- 6개월회원제 / 1년 회원제
- 오전이론+지역이론강의+오후실전문제풀이+기초영어 모두 수강 가능
- 2개월 종합반
- 오전이론+지역이론 강의+기초영어 수강
- 17개월 무료 동영상제공(회원제)
- 전용지식실 사용 가능
- 정독사실, 고시원 할인 혜택
- 시험범 무류사용 가능
- 매주 토요일 기조영어특강 수강
- 실용법 선행 맞춤 수강
- 매일 실전문의고사 실시(OMR카드 성적처리+기분상격료 제공)

* 차별화된 전문 교수진

경찰학개론 김재규 교수	형법 조태업 교수	형사소송법 윤경근 교수
수사 오수령 교수	영어 오순아 교수	영어 김지선 교수

광주 김재규경찰학원
Kim Jae Gyu Police Academy
☎(062)236-3112 www.police3112.net

공무원 아권반 첫진도

공무원 이론반 첫진도 개강 **11월 1일**

★ 행정/세무/교육행정/검찰/교정직-주/야권반 운영 ★

전공과 합격률
실력있는 강사

무등고시학원 동부경찰서우
222-4560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칼레오' 원적외선 필름난방이 책임집니다.

난방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 필름난방은 고효율의 복사열 난방방식이기 때문에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됩니다.

원적외선을 방사하므로 필름회로가 있습니다.
필름난방에서 방출되는 강력한 원적외선 에너지는 우리 몸 내부를 먼저 따뜻하게 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쉬운 난방공사
반도체 도막기술을 이용하여 인체 열매로 불필요한 열을 방출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난방공사를 실현합니다.

인체에 유해한 전자기파 인입하지요.
타체를 열선대신 탄소연상발열체 사용으로 전자기파 제로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주)태양상사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TEL.(062)262-0101

두배 빠른 공무원 합격시스템 - www.hanbitgosi.co.kr

2007 국가직 지방직대비 **공무원**

법원/검찰직
법정서기
법원행정처
법원사무관
법원사무장
법원사무장보조
법원사무장보조보

농업직
농업지도사
농업연구사
농업진흥청
농업진흥청

개강 11월 1일 (홀/짝수반 매일 첫진도 개강)

한빛공무원학원
북구청 건너편 전남대 후문앞 ☎ 234-0234